

# 전북자치도 출범 2년 ‘전북형 특례’ 성과

## 국힘 도당 “여론조작 민주당 재선거 후보 낼 자격 없다”

특례 333개 중 75개 과제 사업화  
농생명산업지구 6곳 지정 완료  
무주·부안·변산 문화관광 약진  
시군 맞춤형 특례 산업 기반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 2년 도민 체감  
행 변화의 기반을 다지며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특례 실행을 통해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 규제 완화, 민생·산업현  
장 개선 등을 추진했다.

지난 2년 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  
별법의 특례 333개 중 75개 과제를 사업  
화하고 지구·단지·특구 지정, 시군별 대  
표 특례 추진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  
되어 다양한 특례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  
이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6  
개소(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가 지정 완료됐다.

권한이양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등 신속한 지구 지정  
및 조성이 가능해져 행정비용이 절감됐  
으며 농업생산에만 머물렀던 지역을 농  
생명산업지구로 조성해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연구개발과 기업 입주까지  
완성함으로써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최초 사례를 만들었다.

또 가족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수의사 7명을 익산·  
부안·정읍·남원 등 5개 거점에 배치했  
다.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한다.

특히 문화·관광·금융 분야에서는 지  
역 특성 맞춤형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  
도 눈에 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무주·부안을 ‘아간

관광진흥도시’로 선정한 후, 부안 변산비  
치립 사업을 통해 변산해수욕장 방문객  
이 213%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무  
주는 세계관광청 주관 ‘25년 UN 최우수  
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머  
쥐었다.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행정 속도 개선  
으로 지역의 기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  
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산림청장  
에서 도지사로 이양되어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도  
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11만평) 및 자  
연환경지구 용도 전환(마을지구·문화유  
산지구, 9.7만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  
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인프라  
여건을 조성했다.

이 외에도 14개 시군별 특화 특례를

통해 문화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다양  
한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  
다.

전주 한스타일 영상지구, 군산 새만금  
고용특구, 익산 동물용의약품, 남원 ECO  
스마트팜, 김제 고품질 논공생산, 진안  
홍삼한방, 장수 저탄소 한우, 임실 임실  
엔지니어·낙농, 순창 미생물, 고창 김치특  
화, 무주 향로산 지구, 부안 운호리 지  
구, 정읍 환경교육 시범도시, 완주 수소  
경제 이행 특례 등 각 시군의 여건과 특  
성에 따라 맞춤형 산업 기반 조성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군간 연계사업 및 미래  
핵심산업 분야의 특례를 선제적으로 발  
굴해 제도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 테  
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확대된 규제 효과  
를 통해 전북형 지방시대 성공 모델을

완성에 나갈 방침이다.

전북특별법은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도의회, 시군, 중앙부처(국무조정실, 행  
정안전부) 등과 협업하여 일궈낸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  
법 후속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 등과 공  
조제제를 본격 가동한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지방의료  
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 등 정부와 협의  
가 끝난 17개 무쟁점 과제가 조속히 국  
회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  
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체계의 전환을  
넘어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자치  
모델의 실현 과정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브리핑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기념 브리핑을 진행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 전북자치도,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年 60만원 지원

日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피해자  
조례 제정 후 첫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고령 고려 보건소가 방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일본 히  
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북  
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  
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고령의 원폭피  
해자들이 겪는 생활 부담을 덜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북특

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이다. 수당  
은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분기별로 15만  
원씩 연 4회(3·6·9·12월) 지급된다. 연  
내 신청할 경우 1월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최초

신청 시에는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  
해 보건소에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신  
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정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한밤중 기습 제명

윤리위 새벽 1시 의결 최고 징계  
당 업무방해·명예 훼손 판단

국민의힘이 14일 새벽 한동훈 전 대  
표를 조작감사 등을 근거로 기습제명  
했다.

한동훈 제명은 전한길을 비롯한 윤여  
계인 세력의 요구였으며, 이를 장동혁  
대표가 윤 여계인 세력을 중심으로 새  
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명한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오  
후 5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당계 논란’에 따른 징계위 결과 “한동  
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  
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대규모 조작 사실이 드러난 당계 감사  
결과와 관련,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  
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며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  
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조  
작 여부와 관계없이 한동훈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

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에 집중해 글을  
작성했다”며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  
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  
하다. 당 업무방해 행위이며, 당의 명예  
와 이익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  
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계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  
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  
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  
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계시판 사  
건’으로 자신을 제명한 대 대해 “계엄  
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  
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  
포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  
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면서 “국민, 당  
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  
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  
고 다른 해결 모색은 고려하고 있지 않  
다”며 제명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 道, 메디컬푸드 메카 도약...대기업 30개사 한자리에

전북대병원 메디컬푸드 컨퍼런스  
산학연관 전문가 참여 비전 공유  
CJ·하림 등 제약 기업 대거 참석  
전국 유일 임상실증 플랫폼 '주목'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 받는 '메디컬푸드' 분야에서 선도적 행보를 보이며 식품·바이오 산업 지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전북도는 14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26 메디컬푸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대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전북이 주도하는 메디컬푸드 산업 생태계의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CJ제일제당, 하림 지주, 오투기, 대상, 콜마글로벌, 매일유업, 대원제약, 종근당건강 등 국내 식품 및 제약 분야를 대표하는 30여개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북의 메디컬푸드

육성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전북이 보유한 전국 유일의 임상실증 플랫폼과 풍부한 농생명 자원에 주목하며, 전북과의 전략적 협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북은 케어푸드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메디컬푸드는 의료·식품·바이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은 이를 중심으로 다 지체제보다 한발 앞서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컨퍼런스 1세션에서는 글로벌 및 국내 시장 동향과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2세션에서는 전북대병원의 R&D 임상실증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 지원 성공 사례가 소개되었다.

참가 기업들은 전북의 원스톱 지원 체



전북도는 14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26 메디컬푸드 컨퍼런스'를 개최해 산학연관 전문가 및 대기업 관계자들과 산업 생태계 비전을 공유했다.

<사진=전북도>

계가 메디컬푸드의 과학적 근거 확보와 제품 상용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의료, 식품, 바이오 역량을 결합한 메디컬푸드

/장정철 기자

## 내란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전례 없는 헌법파괴”

결심공판서 구형 “반국가 활동”  
“장기집권 목적, 죄질 중대”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30년 구형

내란특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역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

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정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실감하게 됐다”며 “감형 사유가 전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사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김복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균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 부르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시작해 11시간 11분 만인 오후 8시 41분께 마무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안호영 “예술작품 버리지 않는 전북 만들 것”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 조성  
보존·전시·아카이브·유통 연결  
‘작지만 중요한 공약’ 첫번째



안호영 위원장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은 13일 “‘작지만 중요한 공약’ 시리즈의 첫 번째 공약으로 ‘개방형 공공 예술수장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공약은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공공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활용하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단순한 보관시설을 넘어, 보존·전시·아카이브·유통이 연계된 개방형 공공 문화 플랫폼으로 설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작품 보관 공간 부족으로 창작 이후의 공간을 감당하지 못해 왔다”며 “특히 작가 사후 유작이 방치되거나 폐기되는 일 역시 반복돼 왔는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문화 행정의 공백”이라고 밝혔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가 접근성 있는 부지에 공공 예술수장고를 조성하고, 향운·향습·보안·방

재 등 미술관급 보존 환경을 갖춘 전문수장시설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작가 동의 하에 작품 대여·전시·유통까지 연계함으로써 창작·보관·공유·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안 위원장은 “이 공약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아니지만, 전북의 문화자산을 지키고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예술을 개인의 부담으로 방치하지 않고, 공공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품을 버리지 않는 전북, 예술을 공공이 책임지는 전북이 ‘작지만 중요한 공약’의 첫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자치도,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현장 점검

자립 역량 지원 핵심 인프라 점검  
노홍석 부지사 “현장의견 적극 반영”

전북도는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자립생활 체험홈과 각종 프로그램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를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부지사는 이날 센터로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추진 현황 △장애 친화 환경 조성 사업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자립 지원 프로그램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자립생활 체험홈과 프로그램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장애인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현장 프로그램들을 점검했다. 특히 탈시설이나 보호자 고령화 등

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자립생활 체험홈의 안전성과 운영 내실화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본관 1·2층에 설치된 8개의 프로그램실을 살피며,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심리·재활 치료 등 실질적인 자립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센터에는 다목적재활실, 아쿠아포닉스실, 스누켈렌실(심리안정실), VR재활실, 클라이밍실, 음악스튜디오, 아하도서관, 체력측정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삶의 선택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2024년 4월 개소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 전북도, 제2경찰학교 등 남원시 핵심 현안 협력 강화

공공의대 설립 등 ‘국비사업’ 속도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관 유치전 본격

전북도는 남원시와 협력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관련기사 8면)

도는 14일 오후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열고 남원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협력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부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남원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들이 조망됐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업은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약 167만㎡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되며, 국공유지 100%라는 점에서 추가 토지 매입 없이 즉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찰청의 후보지 분석 및 사업방식 연구용역이 올해 2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도는 남원 유치의 당위성과 입지 우위를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고 남원시와 함께 부지 실사 및 지자체 면접 등 2차 심사 대비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경찰수련원 신축도 남원 유치 청사진의 한 축이다. 어현동 시유지에 국비 442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4층 규

모 건립 구상으로 경찰청 중기사업계획에 이미 반영됐다. 해안이나 산간에 치우친 기존 시설과 달리 도심 접근성, 문화자원,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운영이 본격화되면 연간 217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도 속도를 낸다.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에 632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키워내는 것이 목표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계류 중이며, 2026년 정부예산에 연구비와 설계비 39억 원이 반영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는 상반기 법안 제정을 목표로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년 개관 이후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시립김병중미술관은 건물 노후화로 전면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리모델링 공사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설계를 마치고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관 유치 경쟁도 본격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도는 문체부 수요조사에 적극 대응해 분관을 전북에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다시

확인하셨나요?

겨울철 화재 예방법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꺼진 불도 다시 보기

1차량 1소화기  
갖기

# 광역도로망 확충·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집중’

## 전주권 광역도로망 구축 추진 지역 건설사참여 확대

전주시가 2026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도로망 확충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나갈 방침이다.

시는 14일 건설안전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도시 분야 5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한 5대 중점 추진

방향은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추진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주거 안정 지원 △하천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이다.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경우, 그동안 지방재정 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광역도로와 연결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 교통혼잡 완화와 이동 시간 단축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수준과 정주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시는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상관~색장 외곽순환도로 구축 등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을 통해 시민 생활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

획이다.

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활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만들기로 했다.

시는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역량을 강화하고, 상황 대응매뉴얼 재정비와 유관기관 간 상황 공유체계를 확립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운영, 집중 안전 점검과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예방 체계도 구

축한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기로 했다. 시는 월평·미산·조촌·공덕 등 4개 지구에 147억 원을 투입해 재해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소지구 저지대 침수 원천 차단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4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용머리·견훤로·서완산6지구 등 급경사지 3개 지구에 대해 38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우범기 시장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추진 점검

### 덕진공원 입구 작가정원 배치 대형 정원축 조성도 구체화

우범기 전주시장은 14일 덕진공원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장소를 찾아 정원 배치 위치 선정과 박람회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전주월드컵광장 일원과 덕진공원

일대 7만㎡를 연계한 대형 정원축을 조성해 시민 힐링과 관련 산업 육성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박람회를 통한 정원 조성 규모는 △코리아가든쇼 작가정원 5곳 △기업동행정원 1곳 △서울 우호정원 1곳 △시민정원 38곳 등 총 45곳으로 확대된다.

우 시장은 이를 통해 새로 조성되는 정

원을 덕진공원만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전통성과 수변 경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박람회를 통해 정원산업 전시와 전 연령 참여 프로그램, 시민 가드너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더불어 주요 행사장인 덕진공원과 월드컵광장을 정원·관광 복합공간으

로 육성하고, 전주만의 정원산업 모델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덕진공원을 비롯한 도시 곳곳에 다양한 정원이 조성돼 대한민국 정원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전주시,출향·전입 채용기업 청년 장려금 지원

전주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활기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고향을 떠난 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기로 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

한다.

사업은 전주지역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이면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출향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올해 지원되는 취업청년 인원은 10명 정도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했던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또,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가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

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춰 최종 선정된 기업은 매월 100만원씩 수습 2개월을 포함해 최대 12개월간 채용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근속 시 최대 90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에어로케이항공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논의

### ‘바이럴마케팅’으로 관광객발길 유인

전주시가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에어로케이(Aero K)’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본격화 한다.

시는 지난 13일 에어로케이항공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주공항 국제선 입국객을 전주로 유입하기 위한 공격적인 공동마케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에어로케이가 △

일본(도쿄, 오사카 등) △중화권(타이베이, 칭다오) △동남아(나트랑, 다낭, 클락) 등 다양한 국제선 직항 노선을 확대함에 따라 이를 전주 관광 수요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가내지·좌석 활용 전주관광지원 홍보 △온라인플랫폼(SNS) 연계 홍보 △현지 여행업체 및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공동 진행 등 구체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당장 시는 에어로케이의 기내 책자와 온라인플랫폼(SNS) 등을 활용해 전주의 매력을 알리는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전주가 매력적인 여행지임을 각인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에어로케이 취항 국가인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의 관광객 특성을 반영한 ‘전주특화관광상품’ 개발 및 현지 인플루언서를 초청하는 공동 팸투어를 기획해

직접 전주를 경험하고 제작한 콘텐츠를 현지에 확산시켜 실질적인 방문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시는 에어로케이와 긴밀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여 급변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하고, 전주 주요 축제 등과 연계한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등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 농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축산물 유통은 그동안 도축·가공·판매 일원화, 도축장 구조 조정,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기반 및 구조가 선진국 수

준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에게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응해 ‘K-농정협

체’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축산물 유통구조

비효율성을 개선해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신임 소방사 실전형 관서 실무실습 운영

#### 현장 중심 소방업무 이해 실전 대응 역량 강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주간 소방사 신임교육 과정 교육생 10명을 대상으로 관서 실무실습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소방업무 이해와 실전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재 실습에 참여 중인 신임 소방사들은 화재진압, 구급, 구조, 행정 등 전 부서를 순환하며 실제 출동과 관서 운영 전반



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론 교육으로는 체감하기 어려운 소방 현장의 긴장감과 하루의 업무 흐름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다.

실습 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단순 참관이 아닌 실무 보조 중심의 실습으로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실습 기간 동안 신임 소방사들이 지역 특성과 관서 운영 체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실무 배치 시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는 현장 친화형 소방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소민 기자

###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능력장학생 5기 모집

26일부터 2월 6일까지공모

전주시가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쳐나갈 글로벌 우수 인재 발굴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5기(2026-17) 전주시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

사업은 글로벌 마인드와 애乡심을 지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말하기 위주의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그램은 △어학 집중코스과 자체평가, 우리 지역 탐방 등으로 구성된 4개월 과정의 국내 연수 △글로벌기법 및 대학투어, 해외도시투어 등 약 2~3주 과정의 국외연수 △개인 활동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 1~2주 과정의 활동 보고로 진행된다. 연수 국가는 미국 등 영어권 국가이다.

선발인원은 10명(도내 대학생 7

명, 도외 대학생 3명)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1명을 선발한다. 연수생 자부담 비용은 1인당 2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면제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자격을 합격한 대학생이다. 성적은 직전 학기 B+이상이어야 하며, 선발될 경우 어학연수 참여를 위해 2026년도 1학기를 휴학해야 한다.

장학생 선발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학업성적 30점과 어학자격증 20점, 생활정도 20점을 기본으로, 자원봉사 실적 최대 1.5점을 가산점으로 반영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게 된다. 이후 2차 면접 심사 30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장학생이 선발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 또는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정실에서 전주 덕진경찰서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 지역 치안 강화에 전주시의회-전주덕진경찰서 “다짐”

남관우 의장·조영일 서장,  
‘시민 체감안전한 전주 만들기’ 협의

이날 간담회는 △지역 내 범죄 예방 및 생활 치안 강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회와 경찰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김영태 기자

### “겨울철 차량화재, 차량용 소화기가 생명을 지킵니다”

전주덕진소방서,  
겨울철 차량화재 예방 홍보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겨울철 차량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온 급강하로 히터 사용이 늘고 배터리·전기계통과 연료계통에 부담이 커지면서 겨울철 차량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량화재는 주행 중이나 정차 중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전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내연기관 차량 화재는 총 1,10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속적인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 한정됐던 의무 대상을 확대해 차량화



차량용 소화기 홍보영상

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법 시행 이후 새로 제작·조립·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차량 소유자에게도 자율적인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전용’ 표시가 있는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5인승 승용차 기준 0.7kg 분량 차량용 소화기 1개 이상 비치가 바람직하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인근 등 화재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기간과 압력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소민 기자

## /정소민 기자

# 2026 전북도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실시’

## 지난해 대비 916명 감소...미참석 아동 중 1명 경찰 수사 의뢰

2026학년도 전북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총 9243명에 대한 예비소집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실시됐다.

2026학년도 전북도 초등취학대상 아동은 △전년도 조기입학 △외국국적 아동 등을 포함해 9243명이다.

아울러 2026년도 초등 신입생은 2025년 10,159명 대비 916명 9%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예비소집 대상 아동 4명 '전주 2

명', '남원 1명', '무주 1명'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파악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 특별소재확인인 나서며 각 지자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특별소재확인 결과 아동 451명 중 취학유예·면제, 부모와 해외출국 등의 사유에 따른 미참석으로 밝혀졌다.

특히 4명 아동 중 3명은 해외 출국 및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으며 아동 1명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워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유선 연락·관계기관 협조 통해 취학 대상 아동 안전을 확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양품화 사업’ 추진

ESG 경영 실천 앞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스마트기기 양품화 사업’을 추진,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하고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교육청이 도내 학교에 일괄 보급한 태블릿,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활용 학년 1학년 47,900여 대를 수거해 양품화 과정을 거쳐 초·중·고 1학년들에게 재배부하는 자원 리사이클링 프로젝트다.

전북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양품화 작업장을 구축, 성능을 고도화하는 체계적인 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거된 기기는 △기능점검 및 수리

△데이터 완전 삭제 및 포맷, 응용S/W 초기화 설치 △해당 학교 맞춤형 스마트기기 재설정 △외관 세척 및 소모품 △성능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새 기기에 준하는 상태로 재탄생된다.

도교육청은 실시간으로 양품화 작업 진행률을 관리하며 기기를 전수 검사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배부를 완료해 학생들이 3월 새 학기 첫 수업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새 학기 전까지 보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전북교육청 ‘학교회계 실무능력 ↑ 예산이월 ↓’ 목표

### 13~14일 학교회계 결산 교육 학교 재정 집행률 99% 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학교(교비)회계 결산을 앞두고 지난 13~14일 이틀간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학년도 K-에듀파인 학교회계 결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이 결산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잡한 업무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교육은 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한 결산 처리 방법을 안내해 결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교육청은 적기에 교육재정을 지원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단위 학교의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5학년도 학교(교비)회계 재정 집행률 99%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에는 학교 예산과 관련한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 누리집에 탑재해 신규 및 저연차 업무 담당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근 예산과장은 “학교회계 시스템 숙달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철저한 결산 관리와 불용액 최소화로 교육재정이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을 앞두고 13~14일 이틀간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학년도 K-에듀파인 학교회계 결산 교육’을 실시했다.

## 남원제일고 조리제빵과, 외식업 창업 실무전에 ‘한창’

수익금 전액 기부

남원제일고등학교 조리제빵과 학생들은 ‘제8회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창업 실무 체험에 한창이다.

14일 남원제일고등학교 김한태 교장은 남원시 소재 ‘이백뜰에’ 카페에서 지난 10~11일 양일간 ‘제8회 팝업 레스토랑’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팝업 레스토랑은 남원제일고 특성사업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추진되고 있다.

주요 목적으로는 △경영실무 △로컬 크리에이터 외식업 창업 실무 과정 등

체험 장 통한 실질적 경험이다.

조리제빵과 학생들과 지도교사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며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레시피를 개발했다.

레스토랑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매년 참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일부는 학생들의 이름으로 지역 장학재단에도 기부하고 있다.

남원제일고 조리제빵과는 그동안 ‘팝업 레스토랑’, ‘팝업 카페’, ‘푸드트럭 운영’, ‘지역 중학생 대상 조리제빵 특강’ 등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을 지속해 오고 있다.

/정혜민 기자

## 전북현대 N팀, 천안시티FC 출신 이상명·최진웅 동시 영입

### 젊은 수비진 강화로 미래 경쟁력 확보

전북현대차는 천안시티FC에서 활약한 수비수 이상명(23)과 최진웅(22)을 동시 영입하며 N팀(N팀)의 전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에 합류한 두 선수는 모두 2025년 천안시티FC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해 신인답지 않은 기량을 선보이며 K리그의 주목을 받은 유망주들이다.

특히 수비수인 이상명(2003년생)은 181cm, 81kg의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으로 한 스피드와 파워가 압권이다. 지난해 프로 데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33경기에 출장하며 천안시티FC의 주전 수비수로 입지를 굳혔다.

이상명은 적극적인 수비 스타일과 탁월한 인터셉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측 풀백(RB)은 물론 중앙 수비수(CB)



용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함께 영입된 최진웅(2004년생)은 186cm의 우수한 신체 조건을 갖춘 센터백이다.

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자, 전북현대에는 이상명의 다재다능함이 팀의 전술 운용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현대차는 이번 동시 영입을 통해 N팀의 수비 깊이를 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A팀의 즉시 전력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육성 선수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 빙상 정유나, 동계체전서 전북에 금메달 선물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이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다음달 25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지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앞두고 빙상 종목이 사전경기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유나(한국체대)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여자 대학부 스피드 스케이팅 3000m에 출전한 정유나는 4분25초52를 기록, 2위를 기록한 선수와 16초94에 달하는 높은 격차로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학부 최강자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동계체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것.

정유나의 주종목은 3000m이며 현재 대학부에서 정 선수의 기록을 따라오는



선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유나는 먼저 펼쳐진 매스스타트 경기

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전북체육회의 지원도 한몫했다.

정유나는 고등학생 선수 시절 재능이 뛰어나고 유망한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로 발전·성장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도체육회의 월드스타 육성사업에 선정돼 각종 지원을 받기도 했다.

/장정철 기자

# 산불 예방 캠페인

전북타임스와 함께하는 산불 없는 전북만들기

산에 갈 때 불씨를 남기지 마세요!

쓰레기 소각은 반드시 금지 하세요

산불 위험 시 입산을 자제 하세요

산불 발견 즉시 119또는 관할 산림관서에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곧 우리의미래를 지킵니다. 산불 예방, 지금 바로 시작 합시다



## 익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5천여 건 8억 1천8백만 원 부과

익산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5,158건, 총 8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부과 세액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등 면허 4종이 신설되고, 무선국 하가와 통신판매업 면허 소지 증가로 전년 대비 약 600만 원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곤충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운달), 여객자동차 운송업(택시) 등 개별 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 면허소유자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정기분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전년도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간편납부를 이용하면 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즉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채소·화훼·버섯 농가 스마트팜 장비 설치 지원

정읍시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서두른다. 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력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농업 시설에 ICT 기술을 접목해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자동으로 관리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는 정밀 농업 실현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기존 온실에 첨단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시설원에 현대화를 위해 △자동개폐기 △환풍기 △차광 시설 △무인방제기 △양액배분시설 등의 설치를 돕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사업 대상지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종료

군산시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이 오는 18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유예기간 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해당 제도는 '정보통신공사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을 의무화했다.

군산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번 제도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확인하고, 관할 건축물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 접수와 함께, 유지보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구직 단념 청년과 함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반 130명 모집 27일 중기 1기 개강

익산시가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반' 참여자 13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18~39세

청년이며, 올해는 총 13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익산청년시정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5주마다 참여 수당 50만 원을 받는다.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창업 시 최대 70만 원의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중기반은 최대 220만 원, 장기반은 최대 35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오는 27일 중기반 1기 개강을 앞두고 현재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후 중기반(15주)과 장기반(25주)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해 더 많은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학업 중단, 장기미취업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역량 강화,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시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운영되는 중·장기반은 개별·집단 상담, 진로·직무 탐색,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청년의 상황과 단계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단기 취업 연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2026 군산시간여행축제 ‘본격 준비’

## 오는 10월 군산시간여행 마을 일원서 개최

군산시가 올해로 열네번째를 맞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26년 제1차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를 열어, 2026년 축제 일정을 의결했으며 향후 축제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추진위원회는 2026년 군산시간여행축제를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시간여행축제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발굴해 축제를 찾는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추진위원회



와 함께 군산시의 역량을 결집해 축제만의 독자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는 13만 5,000명이 방문했으며, 69억 원의 경제

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멀티미디어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와 기획으로 인정받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 첫 운영

##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정읍시가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타개하고 정읍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반한 아이디어를 내놴다. 시는 농한기를 맞아 비어있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정읍 글로벌 청년 겨울캠프'를 기획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오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4주간 이어진다. 2주씩 두 차례

(기수)에 걸쳐 진행되며, 각 기수에는 외국인 유학생 30명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한국인 서포터즈 10명 등 총 80명이 정읍을 찾아 머무르게 된다.

이 사업은 그동안 가을에 집중됐던 정읍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겨울철에도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유재산의 특별한 활용'이다. 시는 농업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않는 겨울철에 비어있는 공공기숙사를 참가자들의 숙소로 제공했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대상을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으로

설정했다. 이들이 단순한 방문객에 그치지 않고, 정읍에 머물며 직접 경험한 매력을 전파하는 확산형 홍보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내장산 국립공원과 구절초 지방정원, 동학농민혁명유적지 등 지역의 대표 명소를 탐방한다. 또한 겨울 농촌 체험과 전통문화 습득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개인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과 탐방 과제(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청년의 시각으로 정읍 관광을 국내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맞춤 인구정책’ 인구감소세 개선

## 출생·혼인 지표 반등·직업 중심 인적 순환 활성화

군산시는 인구감소 흐름이 안정적 완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출생과 혼인 지표가 동반 반등하고, 청년 및 신중년층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 역동성이 강화되는 등 인구 구조 개선의 전환점이 확인됐다.

2025년 12월 31일 군산시 기준 인구는 25만 6,291명으로, 2023년 2,487명에 달했던 인구 감소폭이 2024년 1,933명, 2025년 1,756명으로 완화되며 감소세 둔화 흐름을 3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18~39세 청년 인구의 순이동 개선이 전체 감소 완화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감소 폭은 2023년 2,514명, 2024년 1,618명, 2025년 1,174명으로 감소 규모가 지속 축소됐고, 30대 청년층은 2025년 순유입(+53명)으로 전환되며 지

역 정착 가능성이 확인됐다.

인구 유입의 핵심 요인은 직업 기반의 사회적 이동으로 전라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총남 지역 200명, 전남 지역 122명이 군산으로 순유입되며 산업·고용·정주가 결합된 인구 유입 구조가 강화됐다.

군산시는 구직 단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접장장 무료대여 △지역정착수당(453명) △청년활력수당(202명) 등 취업 전후 과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이동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출생과 혼인 지표의 반등 흐름 역시 도시 생태계 전반의 기반 정책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군산시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SOS 틈새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야간·휴일 돌봄체계를 강화했고,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로 초동돌봄과 놀이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2026년부터는 일상 부담 완화를 위한 가사지원체계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2월부터 시작되는 '군산형 가사서비스' 정책은 맞벌이·신혼·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과 정착을 동시에 지원하며, 출산 장려를 넘어 출산 가능 여건을 도시 차원에서 보장하는 체감 정책으로 설계된다.

주거 목적 전입은 전년 대비 312명 증가하며 유입 요인으로 확대됐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107가구) △청년월세 특별지원(902명) 등은 청년과 신혼 가구의 주거 불안을 낮추고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

찾아가는 인구정책 현장 대화는 입산부, 학부모 등 생활 기반 계층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용성과 행정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군산시는 출생·혼인 반등 흐름과 고용 기반 사회적 이동의 활성화를 도시 인구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선으로 연결해, 청년부터 신중년, 고령 가구까지 전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정주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반값’ 혜택 연장

12월 말까지 50% 감면

정읍시가 농기계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여전히 지속되는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산물 생산비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읍 지역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관내 5개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95종 1618대의 모든 기종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만 8,984농가가 9만 3,929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감면된 임대료 규모는 1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로 약 1만 6,000여 농가가 2억 2,000만원 상당의 추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공공 일자리 추진…취약계층 생계 지원

익산시가 고물가와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공공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상반기 다이로움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총 97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이로움 일자리 사업’은 환경정비 분야 72명을 모집하며, 주 5일 동안 하루 4시간 공원, 체육시설,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에서 근무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5명을 모집하고, 주 5일 동안 하루 5시간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관광자원 활용사업,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한혈자 대상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군산시가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한혈에 참여한 시민을 위한 ‘군산사랑상품권’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14일부터 관내 혈액관리관(한혈)의 집 군산센터 및 대한적십자사 한혈 버스에서 한혈을 완료한 모든 시민에게 군산사랑상품권 지류 1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한혈 참여를 독려해 안정적인 혈액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한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한혈 활성화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해 대한

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에 전달했으며, 혈액원은 지원받은 상품권을 한혈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할 예정이다.

한혈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한혈의 집 군산센터 또는 관내 단체 한혈버스를 방문하면 된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한혈 권장 지원 사업이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발걸음을 많은 시민분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노후 공동주택·경비노동자 환경 개선

익산시가 노후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3,000만 원 이하이며 1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이하로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을 비롯해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과 공유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과 옹벽도 해당한다.

시는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경비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처우 향상에도 앞장선다.

시는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근무·휴게공간의 △도배와 장판 교체 △구조물 보수 등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단지당 최대 500만 원이다. 공동주택 단지당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다음달 12일까지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접수 후 서류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선정이 제외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완주 미니북합타운 공동주택 본격 시동

## 테크노밸리 2단계 아파트 재개 1-BL 구역 시공사 선정 눈앞 국가산단 에타 통과로 '속도'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미니북합타운 내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조성된 미니북합타운은 면적 39만 4,819㎡ 규모로, 수용 인구는 약 8,300명이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2,987세대와 단독주택 333세대를 비롯해 근린공원·소공원, 녹지, 어린이집과 초·중학교 등 생활·교육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니북합타운은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동주택 건설이 지연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최근 수소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통과 등 산업단지 개발 확대와 정주 여건 확충 필요성이 커지면서 사업이 재개 국면에 들어섰다.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미니북합타운 내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완주군>

공동주택은 민간 분양 방식으로 4개 단지가 공급될 계획이며, 단지별로는 △1-BL 777세대 △2-BL 667세대 △3-BL 739세대 △4-BL 804세대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률 230% 이하, 최고 25층,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3·4블록은 북측 학교 인접 구간에 중층(10

층 이하) 배치를 적용해 교육환경 보호와 주거 쾌적성을 함께 고려했다.

1-BL의 경우 2022년 5월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했으며 현재 사업주는 공동주택 공사 진행을 위해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푸르지오와 더샵 등 일부 대형 브랜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모노레일 손배소 29일 상고심 판결 '촉각'

### “408억 대신 값아리” 모노레일 분쟁 심리불속행 기한 넘겨 선고 잠혀

남원시와 남원시 민간개발사업 대주단과의 모노레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지난 13일 남원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시행사가 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이번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당초 22일이었던 심리불속행각 결정 기한을 경과해 대법원 선

고기일이 잡힌 것을 두고 원심판결과 달리 시가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020년 시행사가 시에 불리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에 모노레일 시설물 준공을 앞두고 시행사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사는 2022년 8월

부터 16개월간 모노레일을 운행한 결과, 수익성이 당초 예측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업을 중단 시에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실시협약 제19조를 근거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의회 동의가 유효하고, 해당 사업의 구조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원시는 2심에서 피고 항소가 기각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유소년 소프트테니스로 스포츠마케팅 새해 포문

### 14~19일 공설운동장 실내구장에서 순창군·전북도 후원 전국대회

스포츠 산업도시 순창군이 2026년 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의 첫 포문을 힘차게 열었다.

이달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6일간, 순창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구장에서 제67회 전국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여자소프트테니스연맹(회장 배연숙)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주관하며,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대회다.

대회는 2023년 순창군과 한국여자소프트테니스연맹이 체결한 상호 스포츠대회 유치 협약에 따라 영구적으로 순창군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종목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



이달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6일간, 순창공설운동장 실내 다목적구장에서 제67회 전국 유소년 소프트테니스 대회가 개최된다. <사진=순창군>

성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특히 순창군은 실내 체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해 왔으며, 이번 대회 역시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다목적구장에서 개최됨으로써 참가 선수들과 가족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역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구 유입을 통해 숙박·음식·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현재 순창군은 소프트테니스 종목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매년 10여 개 전국 규모 전문 체육대회와 20여 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있다. 그 결과, 소프트테니스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 남원 방문 '핵심 현안 지원 의지'

### 도민과의 대화 500여명 참석 김병종미술관 리모델링 지원 약속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4일 남원시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남원시가 추진 중인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청 도착 후 시의회를 방문한 김 지사는 시의장단 및 도의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지역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춘향문화예술회

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는 약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 질의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남원시가 건의한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리모델링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관 유치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병종미술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도비 10억 원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동부노인복지관을 찾아 시설 운

영 현황을 확인하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원공설시장에서는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구매 한 물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남원은 전통문화와 미래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성장할 재력이 매우 크다”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북부권 '광역 농기계수리센터' 들어선다

#### 전북도 지원사업 최종 선정 서봉리 일원 부지10억 투입

완주군이 전북도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농기계 수리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수리체계를 구축해 농기계 고장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산면을 비롯한 북부권 6개 면을 아우르는 광역 거점 수리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광역농기계수리센터는 고산면 서봉리 일원에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부지 3,635㎡, 건축면적 724.61㎡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수리센터에는 중·소형 농기계

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내방수리와 출장수리를 병행 운영해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완주군 북부권은 농기계 수요에 비해 수리 인프라가 부족해 농번기 집중 수리로 인한 과부하와 민간 수리업체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이번 광역농기계수리센터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 정비 시스템을 도입해 고장 발생을 사전에 줄여 나갈 방침이다. 수리센터 운영은 고산농협을 주관농협으로 인근 협농협과 공동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농기계 운반 차량을 활용한 운반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수리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농기계작업단 운영…영농 부담 완화

#### 트랙터 등 27대 농기계 투입 작업대행·파쇄 '투트랙' 지원

순창군이 고령농과 취약농가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농기계 활용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농기계작업단을 연중 운영하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에 힘쓰고 있다.

'농기계작업단'은 트랙터 등 27대의 농기계를 활용해 밭작물 중심 주요 농작업 대행 사업으로, 경운, 로터리, 두둑성형, 비닐피복, 퇴비살포 등 농가에서 인력 부족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농기계작업단 이용 요금은 지급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로터리·비닐피복 등 작업은 ㎡당 고령·영세농·장애인·단독 여성농업인 38~62원, 일반농업인은 50~80원이 적용되며, 퇴비살포 작업은 포당 고령·영세농·장애인·단독 여성농업인 200원, 일반농업인 300원이다.

이와 함께 군은 농작업 이후 발생하는 고춧대, 갯대, 콩대 등 영농부산물의 현장 처리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도 운영 중으로, 해당 사업은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 175 농가에서 파쇄 작업을 지원해 전년 대비 작업건수가 52%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운주 생활문화거점·용진 봉서골 소공원 본격

#### 군수 운주면·용진읍 연초방문 생활문화 역량·관광인프라 강화

완주군 운주면 생활문화거점이 확대되고, 용진읍 봉서골 소공원 조성이 본격화 된다.

완주군은 14일 운주면과 용진읍을 차례로 방문,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운주면에서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2단계'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조성된 생활문화공동체센터를 중심으로 동아리 운영과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지역역량 강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은 생활문화공동체센터 공

간 확장, 야외공연장 조성, 운주터미널(버스정류장) 이용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군은 사업 지점상 제약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계를 설명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진읍에서는 '봉서골 소공원 조성 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과거 군부대 훈련장 부지를 활용해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3천 평 부지에 총 16억 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착공,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와 주차공간 확보를 사업에 반영하고, 용진저수지 연계 개발은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원광대와 식용 곤충 레시피 공모전 개최

#### RISE 일환…인식 대전환 모색

남원시와 원광대학교 RISE 사업단은 식용 곤충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심 제고를 위해 식용 곤충 활용 레시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식용 곤충 요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대상 1팀(150만 원), 최우수상 1팀(100만 원), 우수상 1팀(70만 원), 장려상 1팀(50만 원)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28일(수)까지이며, 참가 신청 방법은 원광대 RISE 사업단 홈페이지(rise.wku.ac.kr)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창의성 및 독창성, 실현 가능성, 서류 충실도, 제품화 및 상용화 전략, 기술적 완성도, 지역사회 기여



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서류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출하고, 본선은 발표 평가를 통해 순위가 결정되며, 1~4등까지는 원광대학교 총장 표창과 시상금 차등 지급, 나머지 4팀에는 입상작으로 원광대 RISE 사업단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은 남원시와 원광대가 함께 추진하는 '남원 곤충 이노베이션 리빙랩' RISE 사업과제의 일환으로 대학교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청년도전 참여자 접수 45세까지 최대 250만원 지원

완주군이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도전 사업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직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며, 완주군민의 경우 45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군은 지역 청년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삼례읍(완충지대, 청년몰), 봉동읍(청년종합지원센터), 이서면(이서나루) 등 관내 주요 거점별로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할 계획이다.

총 104명을 모집하며, 참여 기간에 따라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단기 과정(5주) : 24명 모집 /수당 50만 원 지급 △중기 과정(15주) : 52명 모집/수당 150만 원 지급 △장기 과정(25주) : 28명 모집/수당 250만 원 지급

참여자들에게는 건강, 상담, 금융, 법률 등 '생활력 강화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올해는 멘토링과 토레 서포터즈 활동을 보완한다.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취업 연계 활동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완주군 누리집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구급 신청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태이친환경영농조합법인 제주 학교급식 쌀 공급업체 선정

순창군 태이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 '2026~2027년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정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한 우수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이룬 성과다. 태이친환경은 △서류심사 △현지실사 △영양교사가 참여한 밥맛 품평회 등 3단계에 걸친 엄격한 평가 절차를 모두 통과하며 최종 3개 공급업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태이친환경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간, 제주도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백미, 한미 등 친환경 쌀 4종 약 500톤을 공급하게 된다.

태이친환경은 2016년부터 10년간 순창산 친환경 쌀 약 1만 톤을 제주에 공급해 온 베타당 업체다. 오랜 기간 축적된 품질 신뢰도와 함께, 순창군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이번 성과의 밑바탕이 됐다.

특히 순창군은 전북도와의 협력을 통해 추천서를 제출하고, 제주산 농산물을 교차 구매하는 등 도농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202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지역 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6학년도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남원시 계약학과)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는 남원시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근로자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화장품뷰티산업과 목철공예산업을 전공으로 지역 산업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40명과 편입생을 모집하며, 전공 구분 없이 총 모집인원 내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 모집은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2차 모집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된다. 원서 접수는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사무실에서 가능하며 방문 제출과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등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출서류와 세부 사항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dri.jbnu.ac.kr) 또는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입학요건 완화를 통해 교육 기회가 확대됐다. 관내 특성하고 졸업자의 경우 관련 산업체 재직기간이 10개월 미만이라도 재학 중 지속 근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해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 순창군에 500만원 기탁

의성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주석 병원장이 최근 순창군을 방문해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순창읍 백산리 출신인 한주석 병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고향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순창군에 3년 연속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주석 병원장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계절고향 이웃들께 작게나마 희망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고향과 이웃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으로 큰 힘과 희망을 더해준 한주석 병원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보내주신 기부금은 순창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진안 진안읍 이장협의회 일동, 장학금 100만원 기부

진안군 진안읍 이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진안 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신규섭 진안읍 이장협의회장은 “매년 회원들과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이장님들에게도 큰 보람”이라며, “선배 세대의 응원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어 진안을 빛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전춘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매년 잊지 않고 지역 인재들을 위해 따뜻한 정성을 보내주시는 진안읍 이장협의회에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고생해 주시는 이장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장학금인 만큼 우리 학생들이 진안의 미래를 밝힐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전주소녀원 ‘회복적 사법’ 체계 혁신 주도

## 관계 회복·공감·책임 중심 인권 생활지도 모델 전환

분리·징계·처벌 공간이었던 소년원이 대화·이해·회복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전주소녀원이 폭행·괴롭힘 등 갈등 문제를 더 이상 징계로만 처리하지 않고, 관계 회복과 성찰을 중심으로 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체계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전주소녀원의 ‘회복적 사법’ 혁

신은 소년원 내 갈등을 단순 징계로 종결하던 응보적 모델에서, 관계 회복·공감·책임을 중심으로 한 친인권적 생활지도 모델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전주소녀원은 소년들의 행동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이번 혁신을 시작했다.

전주소녀원의 회복적 사법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은 총 8회기 30시간 이상으로 운영된다.

회복적 사법 가치와 갈등 분석,

공감적 경청, 개방형 질문기법 등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실제 상황 기반 롤플레이와 모의 서클을 통해 언어·표정·질문 기술을 훈련한다.

회복적 서클에 참가한 소년들은 “왜 화가 났는지”, “사실은 무엇을 원했는지”를 이해하면서 공격적 대응이 줄고, 표현 능력과 자기 조절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춘덕 교무과장은 “소년원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실수한 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학교’라며, “회복적 사법은 소년들이 상처를 직면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당당히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가장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교육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소녀원은 향후 ‘퍼실리테이터 과정 확대’, ‘전 교직원 대상 회복적 교육 정례화’, ‘회복적 서클의 생활지도 전면 적용’ 등을 통해 징계·통제 중심 문화로 ‘존중·공감·관계 회복’의 문화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완주 봉동읍 농업경영인회, 희망나눔가게에 물품 기탁

완주군 봉동읍 농업경영인회(회장 이경용) 회원들이 봉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국인숙, 윤당호)가 운영하는 희망나눔가게에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며 이웃의 온정을 전했다.

봉동읍 농업경영인회는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로 농업 후계인력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농촌을 이끌어갈 유망 예비 농업인 및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를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경용 회장은 “회원들이 뜻을 모아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지역의 온정을 전하는 나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정읍시 공수의사회, 장학금 300만원 기탁

## 지역 인재 육성에 힘 보태

정읍시 공수의사회(정읍분회장 김진만)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14일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은 정읍시청 2층 단풍회의실에서 열린 ‘공수의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

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공수의사회의 뜻이 모여 마련됐다.

김진만 분회장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공수의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유익식 완주군의장,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이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로부터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은 도내 시·군의회 중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열린 ‘전

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합동교육연수’에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유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선 의원인 유익식 의장은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며, 다년간 쌓아온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민의를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동창옥 의장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

동창옥 의장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현장 중심의 열심히 일

하는 의회,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균형 발전과 군민 행복 실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은 “이번 상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닌, 군민과 동료 의원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의 곁에서 실천하는 의회, 믿음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남원 인월면 ‘영월사’, 희망2026 나눔캠페인 참여

남원시 인월면에 위치한 영월사에서는 지난 1월 10일에 난방비 300만원과 생필품 10종(한가액 200만원)을 관내 생활이 어려운 10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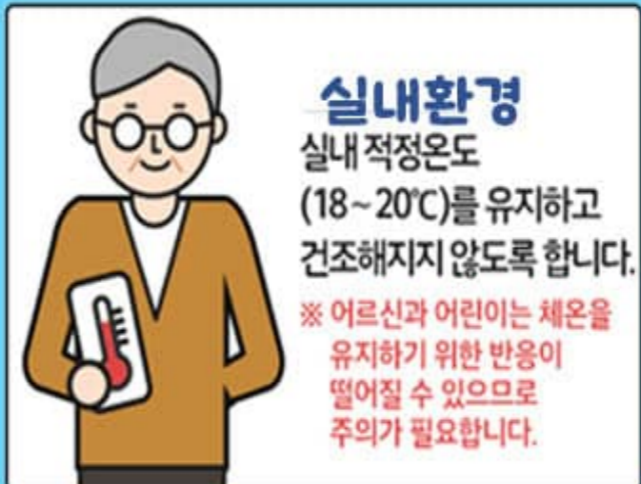
영월사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저소득 아동이 있는 가정과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께 난방비와 물품을 기부하여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담아 나눔의 의미를 더해 고고 있다.

영월사 주지스님은 “처음 나눔을 시작할 때 27가정으로 출발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으나 점점 더해지는 불자들의 정성과 기도로 마련된 성금과 물품을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 10가정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한파 대비 건강수칙

겨울철에는 한파특보 등 기상정보를 매일 청취 하세요!



〈一事一言〉



## 전북특별자치 2년 - 선택의 권한이 만든 변화

김관춘  
주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아 내놓은 자체 평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제도 변화’에 머물던 특별자치가 이제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년은 전북이 특별자치도의 이름에 걸맞은 실험을 시작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성과가 도민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깊이 체감되는지가 관건이다.

출범 2주년을 맞아 열린 도민 보고회에서 제시된 변화의 목록은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니라, 자치권 강화가 지역의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생명산업 분야다.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개 시군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농지전용과 행정 절차에서 오랜 기간 발목을 잡아 온 규제가 완화됐다.

도지사가 직접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속도는 빨라졌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권한 확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 전환의 길을 열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농업을 생계형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전북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축산과 방역 분야에서도 자치의 힘은 분명히 드러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북형 공수의 제도’는 민간수의사를 활용해 도축 검사와 방역 공백을 줄이며 현장의 신뢰를 높였다. 동물용의약품 시험·검사 지원 역시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며, 전북을 축산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키

울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변화라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다.

문화·관광 분야는 특별자치가 지역의 매력을 어떻게 확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도지사 권한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야간관광명소와 야간관광진흥도시를 통해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넓혔다.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는 정책이 현장 경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조성 역시 군산과 부안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해양문화의 중심지로 재정의하고 있다.

금융과 산업 영역에서도 변화는 진행 중이다. 전국 최초의 핀테크육성지구 지정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유치는 청년 창업과 금융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실용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생활 기술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장기 전략의 일부다.

건강·복지 분야에서의 성과는 더욱 직접적이다. C형간염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화재안전취약계층 지원 확대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노인·한부모·다문화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은 포용적 자치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

경제활력 제고와 수산업 규제

완화, 고용특구 운영 역시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변화다. 시험허업 권한 이양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낚시어선 규제 완화로 이용객을 늘린 사례는 중앙 일괄 규제가 아닌 지역 맞춤형 자치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새만금 고용특구를 통한 취업 연계와 고용촉진 지원금 역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결국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평가받는다. 도민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변화가 누적될 때, 전북은 특별자치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난 2년이 가능성을 보여준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그 가능성을 일상의 신뢰로 바꾸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음 2년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특별자치의 성과를 일회성 보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과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 특례 확대가 곧바로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제도의 보완과 운영 방식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일부 특례가 행정과 정책 담당자 중심의 성과로 인식되지 않도록, 도민 참여와 소통 구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때 특별자치는 비로소 ‘도민의 자치’로 완성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의 강점은 단일 산업이 아니라 농생명·문화관광·에너지·금융·환경이 서로

연결되는 융합 구조에 있다. 농생명산업은 관광과 결합해 체험·치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고, 환경·산림 특례는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맞물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계 전략이 강화될수록 전북의 특례는 개별 정책을 넘어 하나의 지역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민해야 할 과제는 ‘다음 단계’다. 앞으로는 물품·주거·교통·교육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서의 추가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 예컨대 농촌형 공공돌봄, 청년·고령자 맞춤형 주거 특례, 산간·도서 지역 교통 규제 완화 등은 도민 체감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시군별 특례 성과가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조정과 연계 전략도 중요하다. 특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강점과 약점은 그 원인을 잘 분석해 대처해야 한다.

특별자치도는 제도의 이름이 아니라, 선택의 권한이다. 전북이 지난 2년간 보여준 변화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지역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하다. 더 과감한 특례, 더 촘촘한 생활 정책으로 자치의 성과를 도민의 일상 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 특별자치 3년 차를 향한 전북의 다음 발걸음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 사설

### 중앙 정치권과 공조한 전북, 예산으로 증명한다

전북 정치 지형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중앙당 지도부에 대거 진입하면서, 그동안 전북이 겪어온 구조적 불리함을 일부나마 상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의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는 현실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 진입은 단순한 인사 성과를 넘어 지역 발전의 실질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 같은 정치적 여건 변화 속에서 전북자치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3,954억 원 규모, 308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급증하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마저 둔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국가예산에 반영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중앙부처 정책 방향에 맞춘 선제적 사업 기획과 정치권과의 전략적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이번엔 발굴된 사업들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차전지, 무인이동체, 탄소산업 등 첨단산업 기반 구축은 지역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과제다. 농생명 분야에서도 푸드테크와 메디컬푸드, 동물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전통 농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가 엿보인다. 여기에 새만금과 SOC, 문화·관광, 안전·복지 분야까지 고르게 포진된 사업 구상은 전북의 균형 있는 도약을 염두에 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발굴’ 이후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거나 논리가 빈약하면 예산 문턱을 넘기 어렵다.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비가 따라오는 시대도 아니다.

중앙당 지도부에 진입한 전북 의원들은 지역 이해를 넘어 국가 정책 속에서 전북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부처별 예산 편성 일정과 논리를 치밀하게 분석해, 사업 하나하나에 경쟁력을 입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국가예산 확보 과정은 전북 행정 역량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단년도 예산 확보에만 매몰되기보다, 중장기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확정해 지속성을 담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부처 협의, 법·제도 개선까지 염두에 둔 입체적 접근 없이는 성과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 정치적 기회를 행정적 실력으로 완성할 때, 비로소 전북은 ‘예산 확보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한정된 국가 예산을 배분하는 힘은 중앙 정치권에 있다.

지금 전북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중앙 정치와 지방 행정이 같은 목표를 향해 호흡을 맞춘다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체질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발굴된 사업들이 숫자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의 더욱 긴밀하고 책임 있는 공조를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무주 한풍루  
(보물 제2129호)

-분류 - 유적건조물, 누정  
-지정일 - 2021년 6월 24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무주군 한풍루로 326-5 (무주읍, 한풍루)

## ▲오늘의시

### 권력 / 꺾 재 구

옛날에는  
호박꽃도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했던 친구가  
패랭이꽃이나 민들레꽃도  
진짜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했던 친구가

갑자기 장미나 백합을 들먹이며  
나머지 꽃들은 뽑아  
없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커와 방패에 기름을 먹이며  
자신이 끌려갔던 닭장차와  
오랫동안 증오했던

최루탄발사기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아 참 단맛이구나  
아 참 꿀맛이구나  
적어도 5년은 그렇게  
입맛을 쥔밧일 것이었습니다.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와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

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1992년 제10회 신동

엽 창작기금을 받아 시집 ‘참 맑은 물살’을 펴냈으며,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순천대 교수를 역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시 010-88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타임스는 독자 여러분을 대변 해 드립니다

N 전북타임스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 김제시, 투자유치 기반 강화로 미래 혁신성장 동력 확보

김제시가 투자유치 기반을 한층 강화하며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2022년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총 8,635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해 1,777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민선 7기 대비 투자규모가 약 40% 증가한 것으로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 산업용지 분양률이 100%에 이르는 상황에서 입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평선·백구 제2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했다.

산업부 기화발전특구지정, 중기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산업부 한국형 쿼터 프로그램 공모 선정, 산업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등 대한민국 투자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김제시를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 # 기업 유치의 신(新)블루오션으로 각광받는 김제시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내외 경기 불안과 정치적 혼란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177개 기업을 비롯한 35개 기업과 총 8,635억 원 투자 및 1,777명 고용 창출을 목표로 투자협약을 체결해 역대 최고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 2025년 10월 기준

〈위도어코코리아, 위한국몰드김제 등 9개 기업과 총 912억원, 535명 고용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안정적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 6월에는 새롭게 조성 중인 백구·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북 최대 규모 기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이어 2025년 3월과 7월에는 산업부의 '기화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사업'과 한국형 쿼터 프로그램 사업에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연속 선정되며 두 사업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 공급 기반과 투자 유인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지평선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연장(25. 2.)되면서 입주기업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 제고는 물론 향후 추가 투자유치 기반 역시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정책적 기반과 함께 백구·지평선 제2 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 산업 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투자설명회 개최, 지역 혁신기관·산업협회와의 세미나·워크숍, 타깃 기업 대상 현장 컨설팅 등 숨 가쁘게 이어지는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며 향후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 # 김제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내외 입증

먼저, 시는 지난해 차별화된 기업지원 시책 추진 등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수상 배경에는 부서별 1:1 기업전담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청년교통비지원사업,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등 김제시만의 차별화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삼성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등 기업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편, 김제형 통상다터를 비롯해 글로벌시장 진출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과 더불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5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준공된지 30년된 순동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 산업단지 환경개선으로 청년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시는 벤처·중소기업 창업의 요람이자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성장 거점이 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지난해 10월 부지조성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김제시는 27년까지 5년간 국비 16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98억원을 투입해 지평선산업단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대규모



## 민선8기 총8,635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민선7기 대비 투자규모 약 40% 증가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내외 입증 신규 산단 조성 및 친(親)기업 환경 구축 등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순동복합문화센터 조감도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지평선 제2산업단지 조감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을 비롯해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다.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으로는 월촌리팩토리 사업, 백구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백구 혁신지원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으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28억 6천 만원을 투입하며 월촌리팩토리 사업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완료했다.

월촌리팩토리 공장은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임대형 공장으로 탈바꿈하여 청년 유입의 기반이 되며, 백구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보행로와 가로 환경을 정비하고, 산책길·녹지공간·쉼터 등 근로자와 지여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백구농공단지와 순동산업단지 내 조성될 복합문화센터는 현장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사를 진행 중이며 북카페, 휴게실 등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이 있어 지역공동체 활

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 미래성장동력 확보, 백구 일반산업단지와 지평선 제2산업단지 조성 순항

시는 안정적 산업용지 공급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백구 일반산업단지와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구 산업단은 2024년 사업에 착수하여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지평선 제2산업단은 지난해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평도면 고시가 최종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시는 지평선제2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도비 329억원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및 공공용수도 설치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7년 신규사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국·도비 확보도 병행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분양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

침이다.

한편, 백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협의 보상 절차를 착수하여 10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지평선산업단지 내 유해 물질 확산 방지 및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완충 저류지 설치도 올해 본격 공사 중에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역대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면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오면 성장하고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기회 도시 김제를 목표로 전방위적 투자 세일즈와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및 경쟁력 있는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온봉기 기자